

24년 상반기 삼성전기 취업후기

안녕하세요, 신소재공학부 18학번 윤정철입니다. 운이 좋게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취업을 준비하시는 신소재공학부 재학생, 졸업생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2023년 8월 경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해 1년 가까이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과 배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지극히 제 사건이며 취준의 방식 중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저는 삼성전기 연구개발 직군으로 지원을 했고, 컴포넌트 사업부/재료개발 직무로 면접을 봤습니다. 아래는 간략한 제 스펙입니다.

학점 : 4.14(전체), 4.17(전공)

어학 : OPIc IM2

대내외활동 : 학부연구생 (류정호 교수님 연구실/1년), 국내전기전자재료학회 (캡스톤 디자인 포스터 발표), 볼링 동아리, 아르바이트 (6개월), 수학 재능기부 봉사활동 (3개월)

수상 경력 : 캡스톤 경진대회 부문 최우수상(국내전기전자재료학회), 학부생 경진대회 부문 우수상(국내전기전자재료학회)

우선 취업을 준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제 지도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삼성의 임원진들은 면접자에게 본인만의 스토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년 가까이 준비를 해보니 이제야 이게 어떤 말인지 와닿습니다. 아마, 삼성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제가 처음 취업 준비를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저를 채워 넣기 급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를 뒤져서 그들이 어떤 역량을 적어냈는지를 찾아내고 그것에 맞춰 제 경험을 옥여넣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제 답변의 일부가 너무나 모나보이진 않을까 고민하며 유튜브를 찾아 모범 답안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의 강점을 말해달라는 것에서, 그냥 가장 성과가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일련의 과정을 서술하고 그것이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덕분이다라는 근거, 차별성, 설득력 모두 없는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을 지원한 이유는 '성장 가능성이 기대돼서', '회사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맞

달아 있어서'같이 천편일률적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4-2학기 졸업 예정으로도 삼성전기 동일 직무에 지원을 해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제 첫 번째 탈락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뭘 잘하는지 모르고, 해당 산업과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팍한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 알량한 경험만으로 면접관들이 뽑아주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고민을 통해 **나만의 강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산업'과 '직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본인만의 관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정말 많은 시간을 이것에 투자했습니다.

[나]

저는 경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살아온 환경, 기억에 남는 일들 등을 꼭 대학교 시기가 아니더라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줄글 형태로 가감없이 작성했습니다. 이후, 이렇게 작성한 부분에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뽑아서 메모해뒀습니다.

면접을 볼 때쯤엔 워드로 20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량을 작성했으며, 스스로에 대해 어느정도 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성격의 장점은 호기심이 많고, 먼저 사과할 줄 알며, 털털하고 뒤끝이 없는 성격이란 것입니다. 이에 비해 제 단점은 부족한 실행력과 일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만약 면접에서 성격의 장단점을 묻는다면 위와 같은 내용들을 두괄식으로 답변하고 적어둔 내용을 그 근거로 말하면 되고, 자기소개서라면 글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진솔한 생각을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들은 모두 워드에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 제 성격의 장점은 먼저 사과할 줄 알고 털털한 성격입니다. 이런 장점 덕분에 친구 관계에서도, 프로젝트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났을 때도 제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며 훨씬 쉽게 상황을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이걸 작성하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제 강점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배운게 있냐?라는 예상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Ex) 저는 '하는만큼 얻는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르바이트 초기 성인으로서 처음 하는 아르바이트다 보니 모든 게 미숙했습니다. (이후 생략)

+ 이런 태도로 학교를 다니면서도 최대한 많은 전공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프로젝트의 조장을 면서 가장 많은 조사를 해야하는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다고 생각이 되어 조장을 도맡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부분들이 제 가치관이 된다고 생각해서 1분 자기소개에서는 이런 제 가치관을 녹여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 면접관님. ~~에 지원한 윤정철입니다. 저는 하는만큼 얻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에서 ~~한 경험으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로도 ~~ 행동을 하며 많은 것들을 얻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삼성전기에서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1분 자기소개 말고도 '본인 가치관이 뭐냐?', '본인을 뽑아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에서도 자신있게 저는 '하는만큼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본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같이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강점을 뱉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적어본다면, 취미도 굳이 본인을 꾸미기 위해 거짓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 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옷 입는 것을 좋아한다면 신상 옷들을 서칭하는 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해외 축구 경기를 보는 게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정말로 본인의 취미인 것이 느껴지도록 생동감있게 전달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 제 취미는 독서입니다. 특히, 몰입감있게 풀어내는 작가의 상상력이 좋아서 소설책을 주로 읽습니다. 최근에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꿀벌의 예언]을 읽었는데, 중세시대로 돌아갔을 때 씻지 못해 느껴지는 가려움, 길거리의 위생 상태와 같은 내용을 생동감있게 묘사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Or 제 취미는 신상 옷을 찾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

는다면 그날 하루가 즐겁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다소 기분 나쁜 일들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맞는 옷을 찾기 위해 정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진심이 조금 더 쉽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TAR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한다면 굳이 질문 리스트를 만들지 않더라도 본인의 이야기로 면접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산업]

제가 그랬듯, 대부분 취업 준비생들의 지원 동기를 들어보면, 반도체 산업 지원자는 AI 시대에 반도체 산업이 유망해서 혹은 지금까지 전공 과목 및 공정 실습을 들으며 준비해왔기에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식의 동기가 많습니다. 단순히 얕은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전공 과목과 공정 실습을 들은 이유는 무엇이고 AI 시대에 산업이 유망한 이유는 무엇인가?같은 간단한 질문들로도 논리가 쉽게 파헤쳐집니다.

따라서, 저는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산업 내부에서 해당 회사가 가지는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제 견해를 내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회사의 지원 동기로 사용했습니다.

면접을 위해 제가 조사했던 삼성전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예로 들겠습니다. 삼성전기에는 크게 3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1. 컴포넌트 사업부 : 반도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수동소자를 생산하는 사업부. AI와 전기자동차를 위해 고성능 반도체가 꾸준히 집적되고 있음. 반도체가 고성능이 되면 될수록 MLCC나 인덕터 같은 안정적인 전류를 공급해주는 수동소자의 역할이 부각될 것. 그리고, 미래에는 온도나 전압에 대한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전기차 배터리 및 엔진 부근에서는 엄청난 고온이 발생하고, 전기차의 급속 충전기 같은 곳에서는 몇 천 볼트의 안정성이 요구되기 때문. 24시간 동작하는 AI 서버와 같은 곳에서도 큰 전력 소모 및 고온이 발생할 것.

2.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 : AI 서버 등에는 반도체 간 더욱 더 빠른 신호 전달을 위해 얇고 고집적이 가능한 기판의 수요가 증가할 것임. 유리 기판도 이런 수요에 의해 개발되고 있음.
3. 광학 통신 사업부 : 자율 주행의 발달으로 고성능 카메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점점 카메라의 역할은 보는 것(Viewing)에서 감지하는 것(Sensing)으로 변하고 있음. 자동차에는 정해진 수의 카메라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으로 물체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더 중요해질 것임. 비오는 날, 어두운 날 등 계절이나 날씨의 변화에도 무리없이 작동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함.

저는 이러한 조사들을 기반으로 지원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4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삼성전기가 가진 기술력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컴포넌트 사업부는 ~~~, 패키지 솔루션은 ~~~, 카메라 모듈은 ~~~. 이런 3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는 삼성전기가 생산하는 부품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큰 매력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조사를 하시다 보면, 회사의 단점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면접에서 말할 기회가 있다면 자신있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다만, 해결책에 대한 본인의 논리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겠죠. 물론 그 논리가 사실이면 좋겠지만 내부 상황을 상세히 모르기에 틀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얼마나 그 회사에 대해 생각해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EX) 삼성전기의 단점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의 30%가량이 삼성전자에서 나오는데, 부품사로서는 너무나 큰 리스크입니다.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는 앞으로 출시될 유리기판 등의 제품군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직무]

직무도 마찬가지로 해당 직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소가 아닌 곳의 연구개발은 '개발'의 성질이 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발명된 제품의 성능을 향상하기도 하겠지만, 개발된 제품을 양산까지 이관하기 위한 최적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민을 통해 직무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닌, 조금 더 입체적인 모습을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면접에 떨어질 줄 알고 준비하고 있던 구매 직무를 예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구매 직무는 단순히 구매만 하는 직무가 아닙니다. 회사마다 성질이 다르겠지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조 라인이 끊기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매 직무는 양산 라인이 끊기지 않게 자재들의 구매 일정을 짜고, 업체와 컨택해 그 납기일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회사의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대비해 그 부분에 대한 자재를 생산할 수 있거나,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협력사를 발굴하고 협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매 직무를 '미래를 대비하는 직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직무 수행 상 본인의 강점을 물어보면, 앞서 [나]에 대해 고찰한 내용 중 미래를 대비하고 보완했던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근거로 나는 진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대답해 담당자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조사한 '산업'의 방향성과 연결 지어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직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곧 본인의 입사 후 포부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직군의 구매 직무라면 앞으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의 변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 차 내 부품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그 부분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이죠.

구매 직무는 실제 면접을 본 재료가발만큼의 디테일은 없지만, 이렇게 직무에 대해 많은 고민을 고민해봤는지, 그리고 직무에 대한 본인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는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본인이 하는 말에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꼭 직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본인만의 생각을 정립해보길 바랍니다.

[마무리]

취업 준비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택이 남은 인생을 좌우할 것만 같기에 망설이게 되고, 새내기 때처럼 가볍게 진로를 틀기에는 늦었다는 생각이 계속 발목을 붙잡습니다.

게다가, 반복되는 서류 탈락과 간혹 붙는 서류에 힘겹게 면접까지 가도 상황평준화된 취업판에서 최종합격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면접에 탈락했

을 때 제가 살아온 인생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은 아직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응원합니다. 너무 주위에 휩쓸리지 않고, 본인 스스로에 확신을 갖고 나아가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면접 보안에 걸려 말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은데,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wjdsksgksl@gmail.com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